

## 건강검진·생일축하금 등 복지 제외

## 금융업계 비정규직 차별관행 만연

고용부, 35개소 위반 기획감독  
34곳서 위반사항 185건 적발  
최저임금 등 금품 미지급 최대  
성희롱·기초 노동질서 위반도  
차별처우 6개월 내 청원제기 가능  
시정지시,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비정규직 차별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생일 축하금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26곳)·카드사(5곳)·신용정보회사(4곳)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34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85건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등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근무)에게는 생일 축하금 10만원, 자기계발비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근무)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정보기술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받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상에서 제외됐고,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 지급하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

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기간제나 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상과금 등 금품과 그밖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을 받는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이나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산업부, 나프타 관세면제 추가연장 추진

강경성 1차관,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관세면제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이 참석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및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등에 따라 친환경 전환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작년 석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15.9% 감소했고, NCC(나프타분해시설) 가동율은 전년대비 7.1% 줄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석유화학업황과 수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범용제품 위주 사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고부가 정밀화학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석유화학 주요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 1차관은 "석유화학산업은 해당 업종을 넘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타주력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몸이 돼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관세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사후프로젝트 등 석유화학대형프로젝트의 적기 준공을 투자지원 전담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기업들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 국내 석화산업 현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수소로 전환 생산

환경부·환경공, 생산 사업자로  
영천시·에코바이오홀딩스 선정

정부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확대에 나선다. 이 같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연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4일 서울 강서구 보타닉파크웨딩에서 경북 영천시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공공영천시, 민간 에코바이오홀딩스)돼, 2개 총 사업비(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를,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공공부문에서 선정된 영천시는 지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경북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sup>3</sup>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수용차 약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 서남동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K-조선, 3년 만에 수주액 '세계 1위' 탈환

올해 1분기 수주액 136억달러  
전년비 41.4% ↑ 중 126억달러  
수주량 韓 32.9% ↑, 中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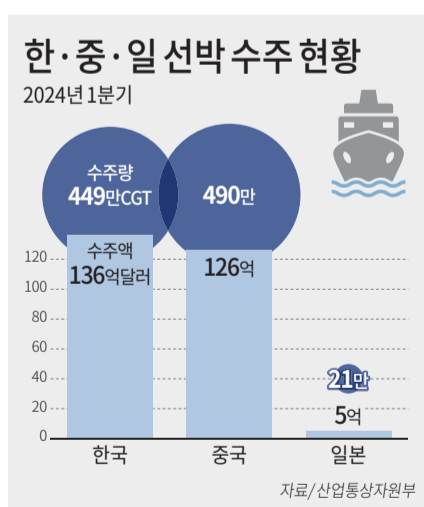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3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4년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선박 수주액은 전년 연간 수주액(299억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분기별 기준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다.

영국의 조선·해운 상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024.4.2일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 선박 수주액은 13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선박 수주액은 126억달러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올해 1분기 전세계 수주액의 약 44.7%를 점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수주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49만 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 CGT)보다 적지만,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32.9% 증가한 반면, 중국은 0.1% 감소했다.

수주량 기준(3월) 세계 조선소 순위는 1위 HD현대중공업, 2위 삼성중공업, 3위 한화오션이다. 3월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 CGT로 중국(73만 CGT)을 앞섰고, 특히 선박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하며 미래 경쟁력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작년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했으며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조선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강원도, 스마트 과수원 단지화 조성할 것"

송미령 농식품 장관, 춘천 찾아  
스마트과수원 실증단지 등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스마트과수원 실증단지를 방문해 '강원지역의 사과산업 육성 방안' 등을 점검했다. 또 지방중소마트 내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현장 관계자들 의견을 살폈다.

송 장관은 도내 사과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복상에 선제적인 대응으

로 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며 "현재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거점APC 건립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어 도내 농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를 찾아 "강원도 내 신규 과원은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두배 이상 증가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단지화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